

금강산







인생이란 각각의 환자들이 침대를 바꾸고 싶어 죽을 지경인 병원이다. 그들 중 하나는 난로 앞에서 고통받기를 원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문 옆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게는 언제나 내가 지금 있는 곳만 아니라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이동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내 영혼과 논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말하라, 내 영혼, 불쌍하게 얼어붙은 영혼, 리스본(Lisbon)에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생각 하는지? 그곳은 분명히 따스할 것이고, 너는 새로워질 테고, 마치 도마뱀처럼 행복하리라. 이 도시는 물가에 있다: 대리석으로 세워졌다고 하며, 그 곳 사람들은 식물을 그토록 혐오하여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렸다고 한다. 여기 너의 취미에 맞는 나라가 있다: 빛과 광석의 풍경, 그리고 그들을 반사시키는 액체.”

내 영혼은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그토록 쉬고 싶어 했으니, 움직이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홀랜드(Holland), 너는 저 지복의 땅에 살고 싶은가? 뮤지움에서 아주 흔히 경배되는 이 지역의 이미지는 너를 아마도 즐겁게 할 것이다. 떡갈나무 숲을 사랑하는 너, 배들이 집들의 계단에 정박하는 로트르담(Rotterdam)에 대해서는 무얼 생각하는가?”

내 영혼은 침묵 속에 머문다.

“바타비아(Batavia), 그곳에는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그곳에서, 심지어, 적도의 아름다움과 결혼한 유럽의 정신을 본다.”

한마디 말도 없다. 내 영혼이여, 죽어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너는 너의 고통 이외에는 행복하지 않은, 무기력과 마비의 상태에 와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죽음과도 같은 곳들로 향해 우리를 달아나게 해보자. 불쌍한 영혼이여, 나는 알고 있다. 스웨덴 북쪽의 토네오(Torneo)로 가기 위해 우리는 짐을 싸야한다. 아니 더 멀리, 발틱의 극단으로, 삶보다도 더 멀리,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들을 극지에 데려다 놓자. 태양이 흐릿하게 땅위를 스치고, 빛이나 밤의 둘 중에 느린 하나가 변화를 짓누르고 단조로움을 증대시키는, 이 절반의 무(無). 그곳에서 우리는 그림자로 오랜 목욕을 할 수 있고, 그 동안에, 기분전환을 위해, 마치 지옥으로부터 불꽃을 반사 하듯이, 북녘하늘의 오로라가 우리에게 분홍의 빛 다발을 이따금씩 보내줄 것이다.”

결국, 내 영혼은 폭발한다. 그리고 현명하게 내게 외친다: “어느 곳이나!, 어느 곳이나! 오직 그곳이 이 세계의 바깥이라면.”

보들레르

# 박찬경

Park Chan-Kyong

1 「북한관·금강산」(1989, 「여행전문도서출판 드라이브社」가 북한에서 간행된 금강산 안내책자를 복제 출간한 책)에 실린 금강산 만물상 사진, 같은 책의 제목 글씨 인용.

2 북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간행한 홍보용 사진집에서 인용.